

# 애완동물과의 공생을 고려한 공동주택 계획요소 연구

## A Study on the Planning Elements for Apartment Residents Living with Companion Animals

김 선 아*	이 연 숙**	이 수 진***
Kim, Sun-A	Lee, Yeun-sok	Lee, Soo-ji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of apartment residents living with their companion animals and to identify their residential stress and needs of planning elements under those conditions. Questionnaire survey was adopted in this study, and 100 case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limited to the residents breeding pets in their apart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of the residents share their living spaces with pets together like their family without spatial restrictions. They indicated problems related to breeding pets in their residence such as walking the dog, cleaning home, leaving pets alone, noise and unpleasant smell. However, they didn't seem to be stressed a lot for their living environments. In terms of residential planning elements, floor plans for effective natural ventilation, balcony with sufficient sunlight, sound proof system, easy-maintenance interior material, unlash area, rubbish bin, mechanical ventilation and central vacuum system and safe electric outlet were highly indicated.

Keywords : pets, planning elements, apartment residents

### 1. 서론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은 도시화, 핵가족화를 가속화 시켜 왔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독신자는 382,024명(1995)에서 502,245명(2000), 노령인구는 431,100명(1995)에서 535,053명(2000)으로 증가<sup>1)</sup>하는 최근의 현상들은 고독감과 인간 소외 현상이라는 현대 사회의 단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신남식, 1998). 이에 애완동물은 반려동물<sup>2)</sup>의 개념으로 인간생활의 동반자로 점차 인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유동근, 윤남수, 박성문, 2004). 그러나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의 경우,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소음, 털 날림, 냄새, 음식물 훼손, 배설물 피해 등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나 각 세대 내에서도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는데 따르는 여러 문제를 유발시

킬 수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따라서 애완동물과 공생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추구하고, 나아가서는 이웃과도 갈등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애완동물과의 공생 실태를 살펴보고, 애완동물과의 공생을 고려한 현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거주자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거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 요구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애완동물을 인간과 공생하는 반려동물로서 인식하고 주거환경 계획을 모색한 선행연구가 없는 현 시점에서, 애완동물과 공생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실증적 접근을 시도한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석사과정  
 \*\*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Ph.D  
 \*\*\*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연구소 연구교수, Ph.D

1) 통계청 (1995,2000)  
 2) 반려동물의 사전적 의미는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존중하며 장난감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을 의미한다.

2. 문헌고찰

2.1 환경 스트레스 모델<sup>3)</sup>

환경심리학에서 널리 이용되는 이론적 모델로서 소음이나 열기와 같은 많은 환경 요소들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는 이론적 접근방법이다. 스트레스는 매개변인인데, 이러한 자극들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된다. 이 ‘반응’은 정서적 성분, 행동적 성분 그리고 생리적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생리적 성분은 Selye(1956)가 최초로 제안했으며, 종종 생체적 스트레스(systemic stress)라고 부른다. Lazarus(1966,1988)가 주장한 행동적 성분과 정서적 성분은 종종 심리적 스트레스(psychological stress)라고 부른다. 오늘날, 환경심리학자들은 통상 이러한 성분들 모두를 환경스트레스 모델 속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Baum, Singer, & Baum, 1981; Evans & Cohen, 1987; Lazarus & Folkman, 1984)

일단 어떤 자극이 위협적이라고 평가되면 경계 반응과 저항이라는 자동적인 대처 방법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처 전략은 도주, 물리적, 언어적, 공격, 또는 두려움이나 분노를 수반하는 일종의 타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대처 반응들이 스트레스 요인을 처리하는데 부적합하고 모든 대체 에너지를 소모했다면 소진단계로 들어간다. 이 과정을 순응이라고 하며, 이는 자극에 대한 신경·생리적 민감성이 점점 약해지며 스트레스 요인이 점점 덜 위협적인 것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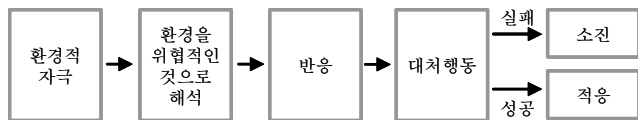


그림 1. 스트레스 모델<sup>4)</sup>

2.2 애완동물 소유 현황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4)의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연구’ 중 애완동물 소유 현황<sup>5)</sup>에 대해 애완동물 사육 가구수, 애완동물 사육 두수, 애완동물 사육두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애완동물 사육 가구수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고 응답한 애완동물 사육 가구수는 전체 조사표본의 약 17.2%를 나타냈으며, 그 중 16.6%가 개를, 0.8%가 고양이를 사육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 전체 3,714,697,가구에서 애완동물을 사육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구를 산출하면 약 6가구

당 1가구가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가구로 추정된다.

2) 애완동물의 사육두수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을 대상으로 개와 고양이의 평균 사육두수를 조사한 결과 각각 1.3마리와 1.0마리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육되는 애완동물의 수를 개 약 17만 마리, 고양이 약 6만 마리로 전체 애완동물의 수를 약 23만 마리로 추정해오고 있었으나, 서울시장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내용을 보면, 추정된 애완동물의 수는 서울시의 추정치보다 약 3.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의 대도시의 경우에도 미국 뉴욕시는 약 280만 마리, 일본 동경도는 약 210만 마리의 애완동물이 사육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잠재적 사육두수

향후 1~2년 이내에 애완동물을 기를 계획을 가진 가구 수는 비사육가구의 5.1%로 전체표본수의 4.2%에 해당한다. 잠재적 총사육가구수의 증가로 서울시는 약 5가구당 1가구가 애완동물을 사육할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개나 고양이를 기를 계획이 있는 가구 수까지 고려하면 서울시에서 사육되는 개나 고양이는 1,022,460마리에 이를 전망이다.

2.3 애완동물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1) 애완동물에 의한 긍정적 영향

애완동물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의 여러 유형은 건강효과, 스트레스 감소와 대처기술 효과, 인지효과, 그리고 사회·정서적 효과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철규, 2002)

건강효과 측면에서 운동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애완동물은 놀이 및 산책을 함께 할 수 있게 하고, 정기적인 식사준비 및 기타 규칙적인 생활을 소홀하기 쉬운 독신이나 노인들에게도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Olbrich, 1995).

미국 조지아 의과대학의 테니스 오운비(Ownby) 박사가 미 의학협회지(AMAA 2002)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이 미국 디트로이트 시 지역에 사는 6-7세 어린이 4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아일 때부터 2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애완동물을 전혀 안 키우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에 비해 알레르기 증세가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감소 측면에서 애완동물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적절한 배출구의 역할을 한다. 애완동물은 위협적이지 않고 비판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애완동물과의 상호작용에서는 사람들이 방어적이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애완동물을 보살피면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 자기가치 또

3) 이연숙(2002).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출판부. p73~76  
 4) 이연숙(2002).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출판부. p73의 <그림3-3>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5) 애완동물의 사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시를 대상지역으로 한정하여, 2004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방식에 의해 조사하였다. 표본은 각 자치구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했으며, 가구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는 자기 효능감 등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서적 그리고 인지적 효과를 가져다주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자원이 된다(신남식, 1998).

인지효과 측면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살피고 먹이를 주어야 하는 애완동물을 가질 때 인지적으로 훨씬 더 활발해져 특히 노인들에게 인지적 능력을 자극시켜 주는데 애완동물은 매우 유익하였다.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돌보는 일과 관련하여 지식과 정보를 얻고 교환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하고 관련 자료를 찾기도 하면서 사람들과 사회적 접촉이 증가된다. 이러한 점에서 애완동물은 인지적 촉매(Cognitive catalyst)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Olbrich, 1995).

사회·정서적 효과 측면에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입과 양육성을 발달시키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사회접촉을 증가시키며 상호작용을 통한 의사소통과 사회기술향상을 가져다준다(정철규, 2002).

2) 애완동물에 의한 부정적 영향

애완동물로서 가장 흔히 접촉하는 개와 고양이 있어서 원인항원은 혈액, 오줌, 타액 등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가장 강력한 것은 피부에서 떨어지는 비듬 속에 많이 존재하고 털에서는 오히려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동물이 털을 핥을 때 타액이 털에 묻어서 털과 함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을 목욕시키면 그러한 타액성분은 제거된다(김우경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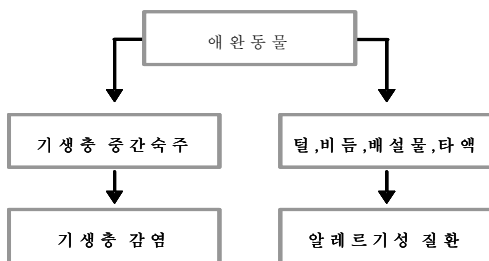


그림 2. 애완동물을 통한 질환<sup>6)</sup>

동물에 의한 알레르기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은 비염으로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리고 소양감 등이며 흔히 눈의 소양감, 눈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호흡곤란, 천명, 기침의 증상을 가져오는 천식은 비염 증상보다 드물며 비염과 동시에 나타나거나 비염이 발생한 후에 나타나고 천식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동물과 접촉한 부위에 발생하는 피부발진과 두드러기도 흔한 증상이며 특히 동물의 털이 타액이나 오줌에 오염되어 있는 경우에 잘 나타난다. 애완동물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기생충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환경적 요인에 의한 접촉과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한 것이다. 환경적 접촉에 의한 사람의 감염은 생활환

6) 김우경(1997), 애완동물을 통한 질환, 대한의사협회지 44호, 97년 1월, p.98 <그림 1>을 인용함

(Life Cycle)에 의한 중간숙주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인데 개나 고양이를 숙주로 하는 *Echinococcus*, *Echinococcus multilocularis*, *Toxocara* 그리고 *Toxoplasma* 등이 있다. *Toxoplasma*의 경우 임신한 동물이나 사람에 감염되었을 경우 태아에게까지 감염이 진행된다. 태어나 유아, 노약자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환자와 같이 면역력이 없는 경우에는 예후가 불량하며 특히 임신부가 감염되어 태반감염이 이루어질 경우 태아는 죽게 되거나 선천성 기형 및 지능 저하의 결과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김우경, 1997).

2.4 애완동물 공생 주택 사례

1) 별이 빛나는 시츄네

애완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한 국내 사례<sup>7)</sup>로서, 2평 남직한 베란다를 활용하여 애완견 침대와 수납장을 갖춘 '애완견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사육에 필요한 각종 물건을 넣어두는 수납장을 빌트인 시스템으로 설치하였다. 사람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강아지가 이동할 수 있도록 문의 아래쪽에 동그란 애견전용 출입구를 만들고, 베란다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를 지켜볼 수 있도록 어린이방의 벽을 허물고 유리문을 만들어 강아지가 두 곳의 전용 출입구를 통하여 어린이방과 거실을 오가도록 한 것이 이 설계안의 요점이다.



그림 3. 별이 빛나는 시츄네<sup>8)</sup>

2) 세키스이 하우스의 애완동물 공생 주택<sup>9)</sup>

일본 세키스이 하우스(Sekisui House)에서 「사람에게도 애완동물에게도 쾌적한 거주지 만들기」를 테마로, 애완동물과 사는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주택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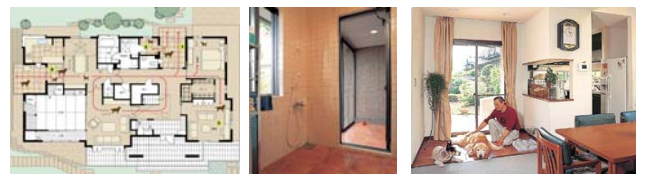


그림 4. 세키스이 하우스의 애완동물 공생 주택<sup>10)</sup>

7)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아파트공간을 연구해 온 한남대학교 건축학부의 한필원(韓弼元) 교수가 대전광역시 K아파트를 '별이 빛나는 시츄네'(http://ata.hannam.ac.kr)라는 애완견과 함께 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안을 개발하였다.

8) http://ata.hannam.ac.kr에서 인용함

9) http://www.sekisuihouse.com내용을 정리함

10) http://www.sekisuihouse.com에서 인용함

사람의 동선도 고려하면서 애완동물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사례이다. 산책용 출입구와 목욕 후에 드라이어로 말릴 수 있는 외부공간과, 애완동물이 쉴 수 있는 옥외정원이 있다. 산책한 후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애완동물 세면공간을 두었는데, 온수가 가능하여 겨울에도 애완동물의 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외부테라스와 같은 타일로 실내·외 왕래가 가능한 애완동물이 쉴 수 있는 전용공간을 두어 공간적인 일체감을 갖게 하고, 밖을 조망되게 하여 개방적인 느낌을 주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개와 고양이가 애완동물 사육두수가 높고, 사회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주요 동물이기 때문이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4). 한편 토끼나 거북, 설치류 같은 종류는 동물의 행동영역을 제한하여 기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공동주택 애완동물 사육 제한 등의 주택법시행령<sup>11)</sup>을 통해 애완동물을 기르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요구사항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진행하였으며, 예비조사는 수의학 전문의 1명과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는 독신자 2명과 일반가구 4명으로 2005년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4일에 걸쳐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목적은 애완동물의 행동이나 심리에 대한 파악을 하고,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파악하여 주거계획요소 항목에 대한 조사 틀을 구성하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공동주택 거주자 100명을 대상으로 2005년 4월 9일부터 2005년 4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은 애완동물을 기르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일반적 특성과 애완동물의 일반적 특성, 애완동물을 기르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현 주거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주거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1. 주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 및 개선계획요소

		스트레스	개선계획요소	실외	실내	설비
애완동물	안전성	바닥이 미끄러워서 애완동물이 자주 미끄러진다.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		○	
		베란다나 창가에서 애완동물이 떨어질까 위험을 느낀다.	낙하 사고를 방지시설(펜스나 망)		○	
		주방에서 칼이나 조리도구 등을 떨어져 애완동물이 다칠 뻔한 적이 있다.	주방으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펜스설치		○	
		외부 산책 시, 자동차, 아이들로부터 애완동물이 다칠까봐 걱정된다.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조경	○		
		집안의 콘센트나 전선 등에 합선될 위험이 있다.	콘센트나 전선 등 전기설비 마감			○
	건강성	집안에 애완동물을 혼자 있을 경우, 파괴행동을 한다.	방문을 닫아도 왕래 가능한 애완동물용 문 설치		○	
		애완동물 피부병이 자주 생긴다.	햇볕을 쬐 수 있는 베란다		○	
		비만이 되지 않도록, 애완동물 운동을 규칙적으로 시킨다.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조경	○		
		외부 산책 시, 쓰레기나 풀 등을 먹고 자주 토한다.	사람과 함께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조경	○		
거주자	안전성	목욕 시, 애완동물이 추위로 감기에 걸릴까 봐 걱정된다.	실내온도 조절이 가능한 욕실		○	
		현관문이 열리면, 애완동물이 현관 밖으로 뛰어나간다.	현관 앞 펜스설치		○	
		손님 방문 시 애완동물이 뛰어오르거나 짖어서 놀란 적이 있다.	애완동물이 피난할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		○	
	쾌적성	여행, 회식 등 애완동물이 혼자서 집을 있을 경우, 애완동물이 걱정된다	감시시스템, 자동 급식기			○
		애완동물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하는 편이다.	애완동물을 맡길 수 있는 위탁소 마련	○		
		외부산책 후, 먼지가 묻은 채 아파트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불편하다.	청소나 교체가 쉬운 마감재		○	
		환기를 해도, 애완동물 냄새가 난다.	애완동물 세면 공간		○	
		웃이나 소파, 바닥 등에 애완동물 털을 수시로 제거한다.	탈취를 위한 환기시스템			○
		외부 산책 시, 배설물 처리가 곤란하다.	맛창을 통해 자연환기가 가능한 개방형 구조		○	
		애완동물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먼지나 털을 제거할 수 있는 중앙진공청소기시스템			○
편리성	애완동물 목욕시키는 일은 힘들다.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 설치	○			
	애완동물의 이동에 따라 일일이 방문을 열고 닫아야 해서 신경이 쓰인다.	애완동물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창고		○		
	애완동물이 실내에서 짖으면 이웃의 눈치가 보인다.	높이 조절할 수 있는 욕조		○		
	외부 산책 시, 배설물 처리가 곤란하다.	두 손으로 씻길 수 있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샤워기		○		
사회성	애완동물이 실내에서 짖으면 이웃의 눈치가 보인다.	미끄럽지 않은 욕실바닥		○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애완동물과 이웃이 마주치면 신경이 쓰인다.	방문을 닫아도 왕래 가능한 애완동물용 문 설치		○		
	외부 산책 시, 배설물 처리가 곤란하다.	충간, 세대간 방음		○		
경제성	애완동물 때문에 마감재(바닥이나 벽, 문 등)를 유지관리하기 어렵다.	엘리베이터에 애완동물이 탔을 시 표시등	○			
	애완동물로 인해서 이사 시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된다.	애완동물 전용산책로	○			
		애완동물 때문에 마감재(바닥이나 벽, 문 등)를 유지관리하기 어렵다.	꺾힌 상처나 더러움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마감		○	
		애완동물로 인해서 이사 시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된다.	애완동물 전용 아파트나 단위세대 분양		○	

11)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을 사육하거나

애완동물을 기르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현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애완동물의 행동적 특성은 애완동물 행동학을 바탕으로 발달행동, 섭식행동, 배설행동, 파괴행동으로, 애완동물의 생물적 특성은 애완동물을 통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바탕으로 거주자의 건강과 관련된 냄새, 털, 피부, 외부먼지로 재구성하여 현 주거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예비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현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애완동물과 거주자 측면 두 관점으로 나누어 주택의 기본 요건인 안전성, 건강성, 쾌적성, 편리성, 사회성, 경제성을 파악하였다. 주거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획요소는 실외계획요소, 실내계획요소, 설비계획요소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설비계획요소는 실내계획요소에 포함되나, 애완동물의 털, 냄새, 외부먼지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설비시스템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따로 분류하였고, 실외계획요소는 주동계획요소와 단지계획요소를 포함시켜 단위주거 이외의 계획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현 주거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와 주거계획요소 항목을 세분화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조사결과 및 논의

4.1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직업의 개인적 특성과 동거가족유형, 월평균수입의 가족적 특성, 주택소유형태, 주택유형, 주택규모의 주택특성으로 나누어 각 범주별 특성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73.5%, 남자가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20대가 75.3%, 30대가 15.5%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직업은 학생이 40.8%, 사무직이 26.5%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유형은 부모+자녀의 2세대 가구가 64.9%, 독신자가 20.6%로 나타났으며, 월평균수입은 200만원대와 500만원대가 높게 나타났다. 주택특성으로 주택소유형태는 자가 65%, 주택유형은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하여 아파트가 5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은 편의추출로 일반화할 수 없지만, 독신자 가정이 가족 유형에서 약 20%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방송시설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은 애완견 등 가족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를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f	%	항목	구분	f	%	
성별	남	26	26.5	월평균수입	100만원미만	5	5.3	
	여	72	73.5		100만원대	16	16.8	
	소 계	98	100.0		200만원대	24	25.3	
연령	20대	73	75.3		300만원대	15	15.8	
	30대	15	15.5		400만원대	11	11.6	
	40대	5	5.2		500만원이상	24	25.3	
	50대	4	4.1		소 계	95	100.0	
	소 계	97	100.0		주택소유형태	자가	65	65.0
	직업	자영업	8			8.2	전세	26
사무직(월급직)		26	26.5			월세	9	9.0
주부		11	11.2			소 계	100	100.0
무직(정년퇴직포함)		5	5.1	주택유형	아파트	54	54.0	
학생		40	40.8		주상복합아파트	5	5.0	
기타		8	8.2		오피스텔	5	5.0	
소 계	98	100.0	다가구주택		12	12.0		
동거가족유형	독신자	20	20.6		다세대주택	22	22.0	
	부부	7	7.2		기타	2	2.0	
	부모+자녀	63	64.9		소 계	100	100.0	
	노부모+부모+자녀	4	4.1		주택규모	20평미만	23	24.0
	기타	3	3.1			20평형대	13	13.5
	소 계	97	100.0			30평형대	24	25.0
주택규모	독신자	20	20.6			40평형대	15	15.6
	부부	7	7.2	50평형대		13	13.5	
	부모+자녀	63	64.9	60평이상		8	8.3	
	노부모+부모+자녀	4	4.1	소 계		96	100.0	
	기타	3	3.1	주택규모		20평미만	23	24.0
	소 계	97	100.0			20평형대	13	13.5
주택규모	독신자	20	20.6			30평형대	24	25.0
	부부	7	7.2			40평형대	15	15.6
	부모+자녀	63	64.9		50평형대	13	13.5	
	노부모+부모+자녀	4	4.1		60평이상	8	8.3	
	기타	3	3.1	소 계	96	100.0		
	소 계	97	100.0					

4.2 조사대상자의 애완동물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애완동물 일반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애완동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는 81%, 고양이는 16%, 개와 고양이를 같이 기르는 경우는 3%로 나타났다. 애완동물의 수는 1마리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애완동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는 81%, 고양이는 16%, 개와 고양이를 같이 기르는 경우는 3%로 나타났다.

애완동물의 수는 1마리가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마리가 19%, 3마리 이상이 2%로 나타났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유로는 본인이 좋아해서가 42%, 가족모두 좋아해서 31%로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 적극적인 이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로우니까, 선물을 받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기르는 소극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 애완동물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f	%
애완동물종류	개	81	81.0
	고양이	16	16.0
	개+고양이	3	3.0
	소 계	100	100.0
애완동물수	1마리	69	69.0
	2마리	19	19.0
	3마리이상	2	2.0
	소 계	100	100.0
애완동물을 기르는 이유	본인이 원래 좋아해서	42	42.0
	가족 중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9	9.0
	가족 모두 좋아해서	31	31.0
	외로우니까	4	4.0
	선물로 받게 되어서	10	10.0
	아이들의 정서교육에 도움이 되어서	2	2.0
	기타	2	2.0
	소 계	1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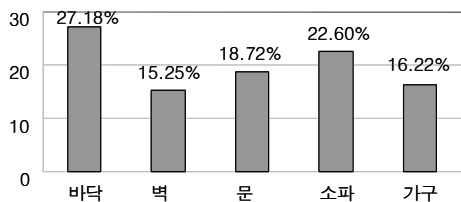
애완동물의 행동을 식사, 목욕, 산책, 취침으로 나누어 주거 내 활동공간에 대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식사 공간은 주로 거실과 부엌, 목욕공간은 욕실, 배설공간은 욕실과 베란다로 애완동물 전용화장실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산책공간은 공원이나 단지 내 산책로, 수면 공간은 침실, 애완동물용 잠자리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을 살펴보면, 집안전체를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80%, 집안영역을 제한하여 활동한다는 20%로 영역에 대한 구분 없이 활동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동물의 주거 내 활동영역을 살펴보면, 사람의 활동 영역과 같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거주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취침을 함으로써, 거주자가 동물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생을 통한 가족의 개념으로 애완동물을 고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애완동물의 활동공간

항목	구분	f	%	항목	구분	f	%		
식사 공간	거실	58	58.0	목욕 공간	욕실	98	98.0		
	부엌	24	24.0		기타	2	2.0		
	침실	10	10.0		소 계	소 계	100	100.0	
	베란다	7	7.0			배설 공간	공원	37	37.0
	기타	1	1.0				단지내 산책로	39	39.0
소 계	100	100.0	운동장	4	4.0				
배설 공간	욕실	33	33.0	기타	1		1.0		
	베란다	27	27.0	산책을 시키지 않는다.	19		19.0		
	거실	16	16.0	소 계	100	100.0			
	공원	2	2.0	수면 공간	사람과 같이 침대	48	48.0		
	기타	22	22.0		소파	1	1.0		
소 계	100	100.0	바닥		6	6.0			
수면 공간	침실	60	60.0		애완동물용 잠자리	41	41.0		
	거실	27	27.0		기타	4	4.0		
	베란다	6	6.0	소 계	100	100.0			
	기타	7	7.0	수면 장소	바닥	27.18%			
	소 계	100	100.0		벽	15.25%			
수면 장소	사람과 같이 침대	48	48.0		문	18.72%			
	소파	1	1.0		소파	22.60%			
	바닥	6	6.0		가구	16.22%			
	애완동물용 잠자리	41	41.0						
	기타	4	4.0						
소 계	100	100.0							

실내 주거 내 마감재 손상유무<그림 5>에 대해 살펴보면, 마감재 손상이 있다는 70%, 마감재 손상이 없다는 30%로 나타났다. 마감재 손상부위는 바닥, 소파, 문, 가구, 벽 순으로 나타났으며 바닥은 접촉빈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4.3 애완동물 사육자의 현 주거환경 스트레스

애완동물을 기르는 거주자의 현 주거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현 주거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는 애완동물 관점(2.68)은 높지 않고, 거주자 관점은 그저 그렇다(3.00)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주자 관점에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애완동물보다 거주자를 먼저 고려하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 현 주거환경 스트레스

스트레스 정도	평균	표준편차
애완동물 관점	2.68	0.68
거주자 관점	3.00	0.51

n=100

애완동물관점에서 본 현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살펴보면<그림 6>, '외부 산책 시, 자동차나 자전거, 아이들로부터 애완동물이 다칠 수 있다.'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닥이 미끄러워서 애완동물이 다리를 다칠 수 있다.', '베란다나 창가에서 떨어질까 위험을 느낀다.', '집안의 콘센트나 전선 등에 감전될 수 있다.' 등의 실내에서 애완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보다 외부환경이나 사람들에게 받는 위험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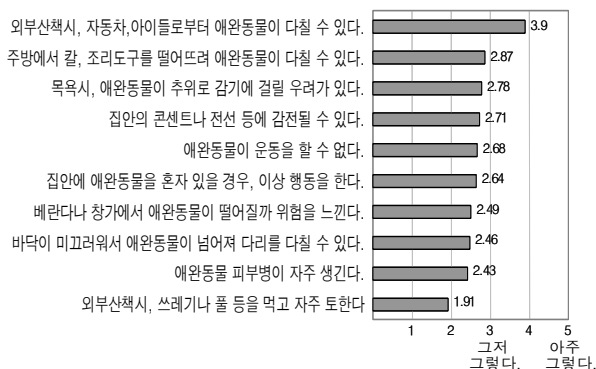


그림 6. 애완동물관점에서 본 현 주거환경 스트레스

거주자 관점에서 본 현 주거환경 스트레스를 살펴보면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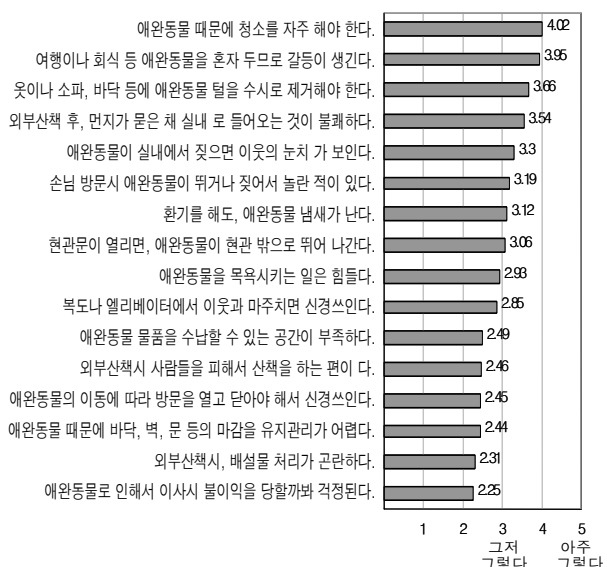


그림 7. 거주자관점에서 본 현 주거환경 스트레스

'애완동물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해야 한다.', '외부산책 후, 먼지가 묻은 채 아파트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불쾌하

다.', '웃이나 소파, 바닥 등에 애완동물 털을 수시로 제거해야 한다.' 등의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장기간 여행이나 가족회식 등 애완동물을 혼자 두는 상황으로 갈등이 생긴다.' 문항으로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위탁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고,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애완동물을 걱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완동물로 인해서 이사 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된다.'는 주택 소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의 경제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현 주거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애완동물 관점과 거주자 관점에서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애완동물이 집안에 혼자 있을 경우, '애완동물이 이상 행동을 한다.(2.64)'보다 '혼자 뒤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갈등이 생긴다(3.9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동물이 분리불안을 일으켜 짖거나, 문을 긁거나, 배설을 하는 등의 파괴행동으로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것보다 집안에 애완동물이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걱정이 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완동물 냄새에 대한 스트레스는 '환기를 해도 애완동물 냄새가 난다(3.12)'가 '외부산책 후, 아파트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불쾌하다(3.54)', '웃이나 소파, 바닥 등에 애완동물 털을 수시로 제거해야 한다(3.66)'보다 낮게 나타났다. 눈에 보이지 않는 냄새에 대한 인식보다,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털이나 먼지 등에 더 큰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완동물을 통한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는 '애완동물이 실내에서 짖으면 이웃의 눈치가 보인다.(3.3)'가 소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외부산책 시 애완동물을 싫어할까봐 사람들을 피해서 산책을 시키는 편이다(2.46)',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애완동물과 있을 때 이웃과 마주치면 신경이 쓰인다(2.85)'가 '외부산책 시, 자동차나 자전거, 아이들로부터 애완동물이 다칠 수 있다(3.9)'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애완동물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외부환경에서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것을 알 수 있다.

#### 4.4 애완동물 사육자의 주거요구

주거계획요소를 실내계획요소, 실외(주동,단지)계획요소, 설비계획요소로 나뉘어서 애완동물을 고려한 주거환경 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를 살펴 본 결과, 실내계획요소(3.63), 실외계획요소(3.62), 설비계획요소(3.67)로 나타났다. 애완동물 관리나 현 주거환경에 대해 '비교적 불편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계획요소로 제안을 하고 물어본 결과는 계획요소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계획요소에 대한 인식하지 못하고, 정보가 부족하였으므로 현 주거환경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애완동물을 고려한 거주자들의 실내계획요소 요구<그림 8>을 살펴보면, '층간, 세대간 방음시설', '햇볕을 쬐 수 있는 베란다', '자연환기가 잘 되는 평면' 등 기본적으로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항에 해당하지만, 애완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냄새, 소

음, 청결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청소하기 쉽거나 교체가 쉬운 마감재',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 등 관리가 쉬운 마감재를 요구하였으며, 단위주거 내에서는 '자연환기가 잘 되는 평면'의 개방적인 공간을, '현관 앞 울타리', '낙하 사고 방지울타리나 망' 등의 애완동물 행동영역을 제한하는 요소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거주자 개인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방해가 되므로 애완동물 전용 문에 대한 요구는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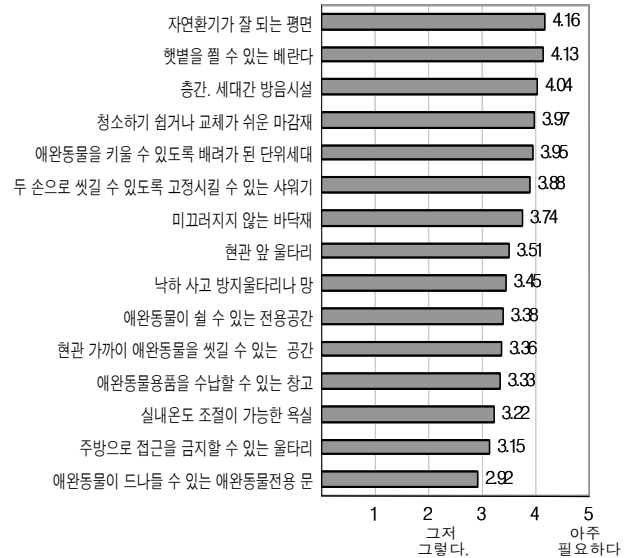


그림 8. 실내계획요소 요구도

애완동물을 고려한 거주자들의 실외계획요소 요구<그림 9>를 살펴보면, '애완동물을 산책시킬 수 있는 전용산책로',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 설치', '애완동물을 맡길 수 있는 단지 내 위탁소' 등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애완동물과의 산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소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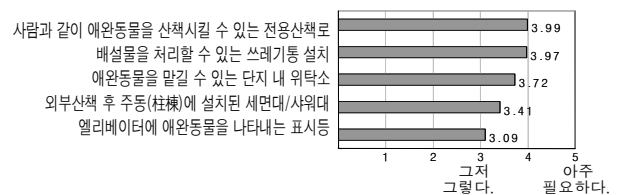


그림 9. 실외계획요소 요구도

애완동물을 고려한 거주자들의 설비계획요소 요구<그림 10>을 살펴보면, '실내탈취를 위한 환기시스템', '먼지나 털을 제거할 수 있는 중앙 집진식 청소 시스템' 등 건강과 관리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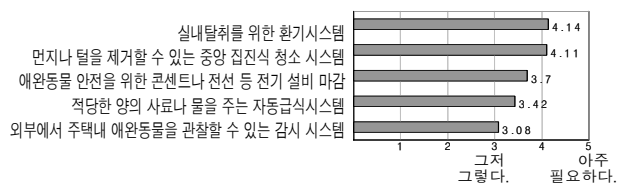


그림 10. 설비계획요소 요구도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애완동물과의 공생을 고려한 현 주거환경의 문제점을 거주자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주거계획 요소에 대한 거주자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현재의 주거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나타난 부분은 애완동물의 털, 냄새, 소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결 문제로 인한 것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실내 환경 쾌적성과 관련된 계획요소에 대한 요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 주거환경에서 드러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애완동물이 동물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생을 통한 가족의 개념으로 고려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기꺼이 감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동주택에서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애완동물 사육자의 현 주거환경과 관련한 개선 요구사항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내계획요소로는 개방적인 평면계획과 단위주거 밖으로 애완동물이 나가지 못하게 제한하는 현관 앞 울타리, 외부산책 후 바로 씻길 수 있도록 청결유지를 위한 세면공간, 층간·세대간 방음시설, 교체가 가능하고 마모가 잘 되지 않는 마감재 등이었고, 실외계획요소로는 애완동물과 같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배려, 마지막으로 설비계획요소로는 냄새와 털을 제거할 수 있는 환기와 청소시스템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애완동물과의 공생을 위한 공동주택 단위주거계획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완동물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애완동물 사육자들은 스트레스를 느끼므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먼지나 이물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관 입구에 씻길 수 있는 공간을 둔다.

둘째, 애완동물의 청결유지와 물품수납, 배변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현관과 거실, 베란다와 연계된 애완동물 전용공간을 설치한다. 또한 이곳을 애완동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애완동물 전용 문을 설치한다.

셋째, 단위주거 내 실외공간의 역할을 하는 베란다는 애완동물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애완동물의 피부병 예방이나 우울증 감소와 같은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며, 배설공간에 대한 자연스런 분리를 유도한다.

본 연구는 애완동물을 사육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향후, 애완동물과 공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다 총체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거나 혹은 애완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애완동물 종류에 따라서 행동학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주거계획 요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우경(1997), 애완동물을 통한 질환, 대한의사협회지 444호, 97-101.
2. 신남식(1998), 애완동물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수의사회지, 34(12), 892-899.
3. 연성찬(2004), 반려동물 행동학, 애니컴.
4. 유동근, 윤남수, 박성문(2004), 펫 비즈니스 창업과 경영, 연경미디어.
5. 이연숙(1998), 실내환경심리행태론, 연세대학교출판부.
6.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연구(200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7. 정철규(2002), 애완동물 사육이 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 고신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8. Dennis R. Ownby(2002), Expose to Dogs and cats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Risk of Allergic Sensitization at 6 to 7 Years of Age, JAMA, 8(288), 963-972.
9. Olbrich, Erhard(1995). The role Companion Animals can play on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of Senior Citizens in both the Home and Institutional Setting. Psychologics Institut der University Erlangen.
10. <http://ata.hannam.ac.kr>
11. <http://www.sekisuihouse.com>